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사관)

# 현대불교

고대불교를 소개하는 특별  
**빅만평생동장**

● 대승 경전 30여 권, 최고  
24권까지 대승해 드립니다.  
● 30년 이상 저해하신 경전  
30여 권의 실용적인 최고  
30년 이상의 실용성입니다.  
●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8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발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한자리에 담긴 진리의 보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인근 골프장 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보(法寶)로 불자들의 귀의의 대상이며 세계인들도 문화유산으로 깊이 지키려 하는데, 유독 문화대국을 자랑하는 우리만이 침부로 대하고 있다. 법보의 상징 팔만대장경을 왜 온존해 보존해야 하는지 또 그 기피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부처님 말씀에 경건하게 마음을 기울여 본다. <편집자주>

장법(正法)의 향고를 가까이 하면, 온갖 노사(老死)의 괴로움을 깨달 수 있다. 그러나 장법을 담담히 알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악취에 떨어져 문화의 바다에 가라앉으리라. <보살정법명경>

### 법의 향고를 가까이

부처님께서 이토록 미묘한 가르침을 설하시니, 이 가르침은 매우 오묘하여 바깥 바깥에 재앙을 제거한다. 이같은 법보(法寶)가 가장 수승하고 진실한 깨달음에 안락할 열게 하는 것이다. <수호대천국토경>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에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끊어 떨어져 재앙을 만나게 된다. <범천신학경>

장법을 호저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바가 없으리라.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장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만약 장법을 떠난다면 온갖 번뇌가 따르게 되리라. <재법집요경>

부처님께서 법보에 의거해 수행하시니, 온갖 공덕을 받고 보리를 완성하시므로

머리 조아려 장법장(正法藏)에 귀의하면, 능히 가없는 고뇌의 인(因)을 없애게 하시며, 과실을 받게 드러내 보여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시어 열반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례(頂禮) 하나이다. <해유경>

아주 오묘한 부처님 가르침을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매우 무거워서 오무간(五無間)의 온갖 죄업보다 더하다. <불모출상경>

선남자야, 만약 사람이 법보를 믿지 않으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와 복이 줄어들고, 소경·귀머거리·방어리·어리석음의 보(報)를 받으며, 늘 축생에 떨어져 탐·노·색·왜지·개 따위가 되니라. <대력목경>

관련기사 18·19면

## 선학원

### 이사 6명 증원 행자교육 추진

(재)선학원이사 장원이 재직 안을 제출하고 조계종 승학을 포기한 가운데, 최근 선학원이 "조계종의 조치에 구애없이 재단 자체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포해 종단과의 대화



진신사리 이운 경주 김은사지 3층서탑(동탑)과 나원리 5층서탑에서 1천3백여년 만에 이루어진 부처님 진신사리 6과와 시리구의 아문석이 지난 11일 장엄하게 봉행됐다. 덕수궁 문화재관리국에서 권고·보신각을 거쳐 조계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날까지 일련에 공개 천경된다. <사진화보 12면>

## 대화 단절이나 분종 수순이나

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종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인 설립취지에 따라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이날 이사를 6명 증원으로 하고 이사 선임에 착수했다. 이같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는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교육 및 선거권 박탈에 따른 것으로 선학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재단발전추진위와 교육원건립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단 발전을 위해 모금하고있는 기금이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재단 자체운영을 위한 영보가 별다른 전망이다. 선학원 사무이사 법진스님은

사를 6명 증원으로 하고 이사 선임에 착수했다. 이같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는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교육 및 선거권 박탈에 따른 것으로 선학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재단발전추진위와 교육원건립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단 발전을 위해 모금하고있는 기금이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재단 자체운영을 위한 영보가 별다른 전망이다. 선학원 사무이사 법진스님은

## 문화재 관람료 인상폭 낮아질듯

### 합동정수사찰 주지회의, 관람료위원회 소집요청

전국 24개 문화재관람료·자연공원입장료 합동정수사찰주지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람료를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지난 6월 28일 관람료위원회가 대폭 인상한 문화재관람료 인상폭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정수사찰 주지들은 10일 회의를 갖고 "관람료관리법의 발효시기문제와 당해사찰주자들이 인상 재조정을 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람료위원회를 소집해 재결의하고 교육적차원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공원입장료의 비율에 맞추어 관

람료를 조정해 줄 것"을 관람료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합동정수사찰주지들은 △공원입장료중 30%를 문화재 보수지원 및 토지이용료 손실보상명목으로 해당사찰에 지급할 것 △관람료와 입장료 합동정수 관련 법령에 명문화 할 것 △조계종 신도중 소지자의 공원입장료를 면제할 것 등 자연공원 관련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행을 강력촉구했다. 이에앞서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8월 9일 양일간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실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자연공원과 대

정부 현안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관람료인상은 불가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합동정수명문화와 문화재보수비지원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신도중소지자의 국립공원입장료면제에 대해 "당해 사찰신도에 한해서만 공원입장료를 면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새로운 정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관람료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2시 제2회 관람료위원회를 개최한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아후'에 등록됐다. 주제어에 따라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서치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아후'는 현재 인터넷 '다단계 접근 방식'으로 'korea buddhism'(한국 불교) 'korea seon'(한국 선) 등의 주제어를 사용해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아후를 통해 검색할

## 현대불교 인터넷 부다피아 '아후' 등록

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정보 검색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이다. 아후에서 부다피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채택한 방식은 수 있는 한국종교 관련 웹사이트는 현재 기독교(22개), 불교(1개), 루터교(1개) 등 총 24개이다.

"종단에서 행자들에 대한 교육 거부로 숙회하는 행자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계를 받지 못한 40여명의 행자를 위해 금년 가을부터 자체 행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비구강원과 비구니강원, 연수원비구로, 묘관음사(경남 양산) 정각사(지리산) 대화사(경북 울

## 15대 정각회 회장에 서석재의원

### "불교현안해결 최선"



서석재의원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5대 국회정각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만장일치로 서석재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회에는 39명의 회원중 김명운 김태호 황규선(신한국당) 박상규 한영애 박한주(국민회의) 정삼구 조영재(지민련)의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박원기의원(신한국당)을 선출했다. 회장에 선출된 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불교현안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이

## 소비자 보호위원회 18일 총지사서 현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가 주최하고 총지종이 주관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 총지종법장원장)가 오는 18일 오후2시 총지사서서서 현판기념식을 갖는다. <관련기사 83호 1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불교계 최초의 소비자보호운동기구이다.

##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낸다

**동참해주신 분**

△석구 정방사주지: 재청고 재전 여고(2구좌) △원림 덕운사주지: 대전 갈마중(1구좌) △승병목 불교방송 실무: (1구좌) △어상훈 중앙일보 편집장: (1구좌) △양형진 고려대학교: (7월11일 현재 총 360구좌 접수)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공공불교가 복원된다”** 18면

**불자 여름보내기 베스트10** 8면

**그 절에 가고싶다** 9면

**인터넷 지상법석** 10·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洋藥品の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능·효과:  
파로회복,간기능  
보조 및 개선  
풍민·풍담  
1일1회 1~2회

**일양약품** 醫藥品